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자료집

목 차

여는 글	3
사업 소개	4
구리시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8
울산 및 경주 작은도서관 모임	14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22
춘천 작은도서관 모임	30
인천 작은도서관 모임	38
서울 작은도서관 모임	46
설문조사 결과	54

함께 하는 공부,
다시
연대의 힘을
만들다

2022년은 작은도서관에게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어느 하루하루 힘들지 않은 적은 없지만, 2022년이 유독 힘들게 느껴진 이유는 작은도서관 현장에 다양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변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밀접한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끼쳐 이용자가 감소했고, 대면 강의에는 모집이 되지 않는 상황이 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장점인 책을 통한 진한 만남을 지속하기에도 힘들었습니다. 힘든 세월 동안 서로를 응원하며 작은도서관을 지켜주던 네트워크, 연대의 힘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늘면서 느슨해졌고, 함께 무엇을 하자고 말하는 것은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이런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작은도서관끼리 연대를 이루어 공부한다는 것이 맞을까? 아직도 유효한가? 도대체 또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작은도서관 운영 하나도 바쁘는데 함께 모여 시간 맞춰 공부한다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다시 모여 공부하기를 결심한 선정된 여섯 단위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만나니 좋았어요. 그것 자체가 공부였네요.”, “자칫 사라질 뻔한 협의회가 다시 힘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역시 만나야 해요. 만나야 힘을 받죠. 공부가 재밌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인사를 하고,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며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관통하는 그 마음들을 코로나가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는 숙제가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멋지게 스스로의 세계를 확장하고,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자료집으로 묶어 냅니다.

광대한 우주 안에서 함께 공부하는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 모든 과정을 몸소 겪은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에 함께한 도반들의 이야기를 읽어봐 주세요. 공부를 통해 더 단단해진 그들의 연대는 참 부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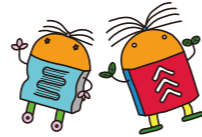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2023년에도 함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부는 좋은 사람과 함께 그리고 스스로 할 때 빛나는 법이니까요. 이 자료집을 다 읽으시고 나서 결심해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

2022.12.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1. 사업 소개

1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Child and Small Library Association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책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 도서관 회원과 개인회원, 자료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지부(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울산경주, 강원, 충청, 대구, 경상, 광주, 호남)가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 103곳, 협의회 7개(256 곳), 개인회원 10명, 총 120개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2022.11.29. 기준)
- 중앙에는 사무국,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를 두고 이사장, 상임이사, 4명의 간사가 활동하며 각 지부 및 회원도서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서문화재단 씨앗



- (재)도서문화재단 씨앗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은 물론, 특정 주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사업을 기획, 추진, 지원합니다.
-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온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자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며 기금의 운영과 집행을 위해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 사업 추진 목적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 스스로 교육을 기획, 진행함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 교육내용과 결과를 일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교육과정과 변화를 알려 작은도서관을 알린다.
-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될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전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

3. 사업 기간

- 2022년 4월 ~ 2022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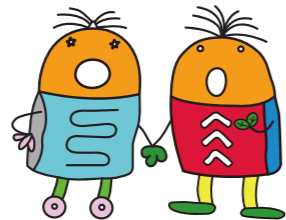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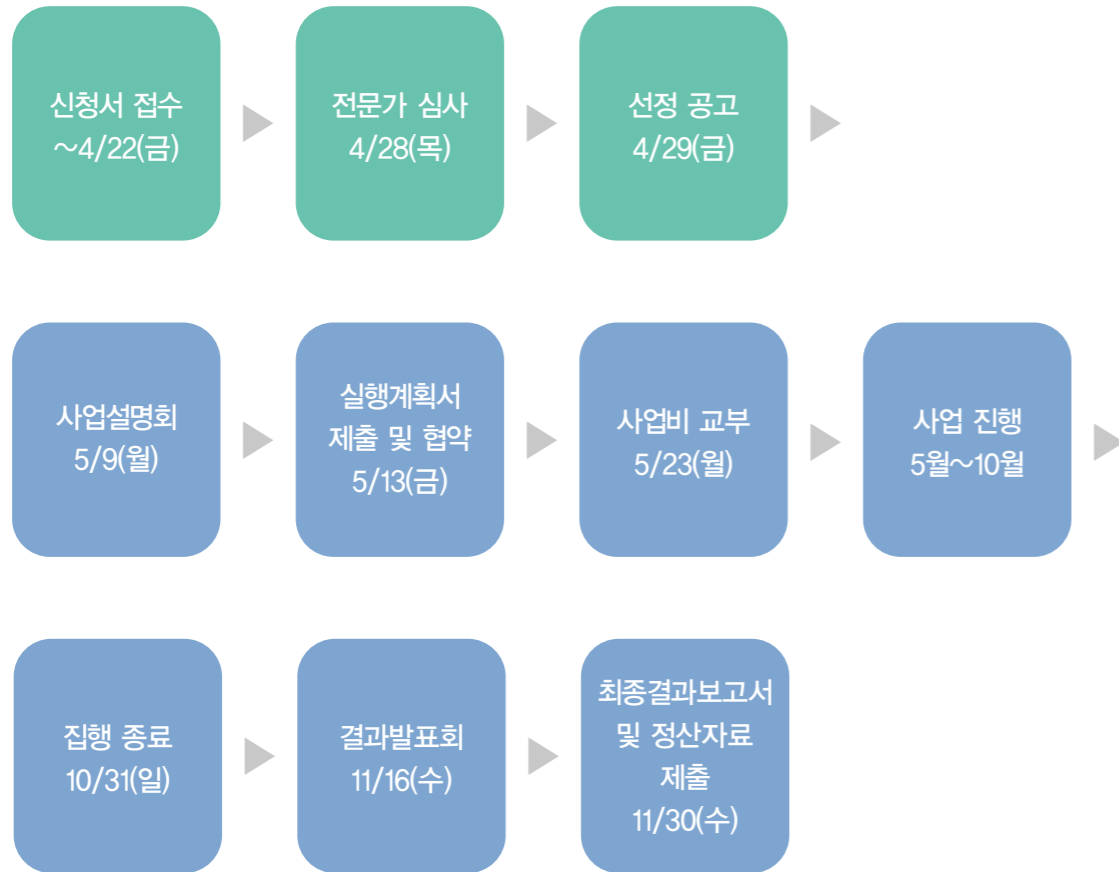
4. 사업 추진 내용

- 각 선정 단위별 총 2,500,000원 예산 지원
- 활동 방향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현장 점검(실사) 진행

5. 선정 단위 소개

번호	지역	단 위 명
1	경 기	구리시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2	경 상	울산 및 경주 작은도서관 모임
3	경 기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4	강 원	춘천 작은도서관 모임
5	인 천	인천 작은도서관 모임
6	서 울	서울 작은도서관 모임

6. 사업 추진 일정



독서의 지평을 넓히는 아프리카 소설 읽기

아프리카의 눈물, 웃음, 새로움을 나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아프리카는 인류가 발생한 지역으로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륙이지만, 우리는 가난과 분쟁, 광활한 자연의 이미지로 한정한다. 2021년에는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노벨문학상, 부커상, 풀브라상을 모두 아프리카 작가들이 수상했다. 한국에서는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 부러워만 번역되었을 뿐이다.

구리시 사립 작은도서관, 동네책방 및 독서동아리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소설을 통해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독서큐레이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진행 : 이정선 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양학부]

일시	주제	도서명 작가 [국가] 장소	일시	주제	도서명 작가 [국가] 장소
7월 9일(토) 오전 10시	아프리카의 눈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치누아 아체베 (나이지리아) - 갈매스위첸작은도서관 -	8월 25일(목) 오전 10시	아프리카의 웃음	아자열매술꾼 아모스 투투올라 (나이지리아) - 갈매스위첸작은도서관 -
7월 18일(금) 오전 10시		나라의 심장부에서 J.M. 쿛시 (남아공) - 애기똥풀도서관 -	9월 19일(일) 오전 10시	아프리카의 새로움	십자가 위의 악마 응구기 와 씨옹오 (케냐) - 애기똥풀도서관 -
8월 11일(목) 오전 10시		집으로 가는 길 이스마엘 베아 (시에라리온) - 갈매책방 북적북적 -	10월 8일(토) 오전 10시		뫼르소, 살인사건 카멜 다우드 (알제리) - 갈매책방 북적북적 -

후원 |서머리아와 작은도서관협회 도서문화재단 씨앗 |시행 구리시 사립 작은도서관, 동네책방,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1. 소개

지역 도서관이나 독서동아리들이 서구 위주의 책임이나 그림책 읽기로 치우쳐져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구리의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들과 동네책방이 그동안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독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도서관이 독서의 지평을 넓히고, 세계의 책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먼저 아프리카의 소설을 공부하기로 했다. 마침 지역에 아프리카 소설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있어서 강사로 모시고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어느 단위까지 신청자를 받을 것인가는 고민이 되었지만, 도서관이나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애기똥풀도서관이 전체 사업의 대표를 맡고, 실무를 갈매스위첸작은도서관이 맡고, 홍보는 동네책방 북적북적이 하도록 했다. 웹자보는 갈매스위첸도서관장님의 도움으로 멋지게 나왔고,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시작 전의 준비과정은 착착 잘 진행되었다.

일정과 내용

차수	날 짜	주 제	작 품
1	7/9	아프리카의 눈물	치누아 아체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나이지리아)
2	7/25		J.M. 쿛시, 『나라의 심장부에서』(남아공)
3	8/11		이스마엘 베아, 『집으로 가는 길』(시에라리온)
4	8/25	아프리카의 웃음	아모스 투투올라, 『아자열매술꾼』(나이지리아)
5	9/12	아프리카의 새로움	응구기 와 씨옹오, 『십자가 위의 악마』(케냐)
6	10/18		카멜 다우드, 『뫼르소, 살인사건』(알제리)
부교재		고인환, 이석호, 이정선 외, 『키워드 읽는 아프리카 소설』,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키워드 읽는 아프리카 소설 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7월 9일



7월 9일



8월 11일



9월 9일



10월 8일

커리큘럼은 아프리카 소설 강사님께 전적으로 맡겼지만, 다양한 나라의 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결국 주제별로 아프리카의 눈물, 아프리카의 웃음, 아프리카의 새로움이라는 세 주제로 각 2권씩의 소설을 읽으려고 계획했으나, 절판된 책이 많았으나, 잘 조절해서 주제별로 읽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눈물’로는 나이지리아,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남아공, J.M. 쿛시의 <나라의 심장부에서>, 앙고라, 이스마엘 베아의 <집으로 가는 길> 세 권의 책을 읽었다. 이들 책은 서구의 침략과 내전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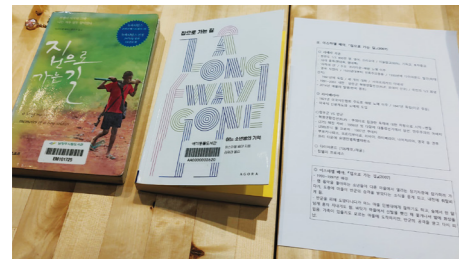
▶ 더 읽으면 좋은 도서 목록

- 주제 에두아르두 아구아루사, 『망각에 관한 일반론』, 『기억을 파는 남자』(앙골라)
- 응구기 와 씨옹오, 『한 톨의 밀알』, 『피의 꽃잎들』(케냐)
- 쿿시, 『야만인을 기다리며』, 『철의 시대』, 『마이클K의 삶과 시대』(남아공)
- 베시 헤드, 『비구름이 모일 때』(남아공, 보츠와나)
- 루이스 응고시, 『검은 새의 노래』(남아공)
- 알랭 마방쿠, 『아프리카 술집 외상은 어림없지』(콩고)



‘아프리카의 웃음’으로는 절판된 책이 많아 한 권만 읽게 되었는데, 나이지리아, 아모스 투투올라의 <야자열매술꾼>을 읽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아프리카의 낙관적인 인생관을 만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새로움’에서는 케냐, 응구기 와 씨옹오의 <십자가 위의 악마>, 알제리, 카멜 다우드르의 <외르소, 살인사건>을 읽었는데, 서구의 시선에 의해 왜곡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2. 진행 후

스스로 아카데미 아프리카 소설 읽기 수업 후에도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각 도서관별로 아프리카 소설 읽기 모임을 구성하기를 원했지만, 여의치 않은 도서관도 있어서 애기똥풀도서관에서 이정선 강사를 모시고, 월 2회씩 아프리카 소설을 한 편씩 읽고 토론하기로 하여, 도서관 실무자가 봉사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동아리를 구성하였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경험했다. 연대해야 되는데, 연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자신의 길을 가느라 너무나도 바쁘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쪽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너무나 많은 단톡방, 너무나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 너무나 많은 밴드 모임의 홍수 속에서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는 있을까?

사립 작은도서관은 특히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관장 인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도우며 함께 하지 않고서는 단 한 달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도서관에서의 활동 외에 다른 연대를 꿈꾸기가 더욱 어렵다. 나만, 내 도서관만 잘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워야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도서관과 동네책방 등 독서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시대를 읽어내려면,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모이기 힘든 상황을 뚫고 우리는 여전히 모이기를 희망한다. 한둘이 모여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해나가길 원해야 한다. 지치지 말고 살아남아 후대에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아, 그때는 어떻게 초인적인 힘으로 연대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시대를 바꾸어낼 수 있었을까?’ 놀라워하는 후손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3. 참여자 후기

- 스스로 아카데미를 기회로 아프리카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책 몇 권으로 깨질 수 있을까의 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한 시간 함께 하며, 또 그 시간들을 위해 책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와 색다른 해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책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또 책마다 자주 등장하던 콜라열매에 대한 궁금증을 공유하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작은도서관을 그리고 지역사회에 독서 문화를 위해 일하시는 책방과의 교류를 책을 매개로 하는 것에도 나름의 힐링 시간이었다고 돌아켜봅니다.

작년 말 개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겨우겨우 도서관을 운영하던 저희들에게 조그마한 숨통이었던

스스로 아카데미 시간이 모두 다 참여할 순 없었지만 함께 하는 동지라는 느낌에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주관해 주시는 협회에도 깊은 감사

드리며, 함께 하자고 손 내밀어주신 애기똥풀도서관 한은희 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갈매스위첸 곽수현 관장

- 아프리카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강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배경설명까지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었다.

▶ 일반 참여자

- 아프리카가 우리나라 현실이랑도 매우 비슷한 것 같다. 식민지를 지내고, 군사 군부독재도 그렇고, 신자유주의의 물질만능주의도 그렇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 나라의 소설은 아프리카 소설만큼 직설적이지도 솔직하지도 않은 것이 아닐까 싶다.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으로 편입이 되어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솔직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한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애기똥풀도서관 한은희 관장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덥고 내전이 많은 끔찍하게 살기 어려운 나라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번 아프리카 소설을 통해 아프리카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세계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놀라운 문화를 접하게 되어 너무나도 신선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독서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았고, 뭔가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 일반 참여자

- 아프리카 소설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어떤 것은 지루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재미있었고, 아프리카 음식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자열매술이나 카사바 등을 찾아보기도 했다. 아프리카 음악도 멋진 것이 많았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보고 싶다.

▶ 일반 참여자

울산 및 경주 작은도서관 모임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나는 도서관 랩퍼🎵 꿈꾸는 도서관 비트로 말해봐🎵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공감을 위하여 비트로 말해봐!
랩하는대로 생각을 말해봐!
꿈꾸는 도서관 비트로 말해봐!

나는 도서관 랩퍼🎵 꿈꾸는 도서관 비트로 말해봐🎵

언제: 2022년 9/6, 9/13, 9/20, 9/27
(연습:오전 10시~12시)

녹음: 10/4(화) 10시~15시(홍5회 참석)

어디: 울산시 중구 다운로 2
세린 작은 도서관 1층(비파와수금)

누가: 울산 작은 도서관 협회 회원 누구나
문의: 070.7123.0210
신청: 010.4203.1314
신청기간: 8/6(토)~8/15(월)

**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이야기
협회 회원분 참여 기다립니다!~O~**

후원:(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주관:울산작은도서관협회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스스로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울산작은도서관협회는 작은도서관운영자들의 희망과 작은도서관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랩으로 만나는 스스로아카데미를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도서관 랩퍼🎵 꿈꾸는 도서관 비트로 말해봐🎵

○ 강의일시 :

차시	일자	시간	강의내용
1차	9월 6일	10시~12시	랩이란?
2차	9월 13일	10시~12시	라임과 펀치라인
3차	9월 20일	10시~12시	비트를 만들어 본다
4차	9월 27일	10시~12시	비트에 맞는 가사
5차	10월 4일	10시~15시	연습 및 녹음

○ 신청자격 : ① 협회 회원
② 선착순 20명

○ 신청기간 : 2022년 8월 6일(토) ~ 8월 31일(수)

○ 연락처 : 010-4203-1314 / 070-713-0210

○ 강의장소 : 세린작은도서관1층 비파와 수금 (중구 다운로2)

○ 후원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 주관 울산작은도서관협회

1. 소개

스스로 아카데미 선정 단위 소개

- 경주 · 울산 작은도서관 모임 : 경주 토함산 아래 작은도서관(보조강사 피터) · 울산작은도서관협회 39개 전체 회원

아카데미 기획 배경

- 울산작은도서관협회 39개 전체 회원의 네트워크 강화
-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도전과 모험을 통해 받은 에너지를 작은도서관 운영에 활용

일정과 내용

일시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강사 혹은 진행자	비고
9/6(화) 1차 10:00 ~12:00	1. 강의 명 : 랩워크숍1 2. 강의 내용 : 랩에 대해서, 워크숍에서 나왔던 곡들을 예시로 들어본다. 가사쓰기의 기본을 연습한다. 3. 장소 : 세린도서관 1층 공연장 비파와 수금	강사 : 김용래 / 래퍼 진행자 : 김용진 소속 : 경주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	
9/13(화) 2차 10:00 ~12:00	1. 강의 명 : 랩워크숍2 2. 강의 내용 : 랩의 기본들을 이루는 라임과 펀치라인을 배우고, 실제로 가사를 함께 써 본다 3. 장소 : 세린도서관 1층 공연장 비파와 수금	진행자 : 김용진/ 소속 : 경주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	
9/20(화) 3차 10:00 ~12:00	1. 강의 명 : 비트와 녹음 1. 2. 강의 내용 : 비트를 만들어 본다. 자신에게 맞는 비트를 생각한다. 3. 장소 : 세린도서관 1층 공연장 비파와 수금	강사 : 김용래 / 래퍼 진행자 : 김용진 소속 : 경주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	
9/27(화) 4차 10:00 ~12:00	1. 소모임 1 2. 내용 : 보조강사와 함께 비트에 맞는 가사를 수정해 본다. 3. 장소 : 세린도서관 1층 공연장 비파와 수금	진행자 : 김용진/ 소속 : 경주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	
10/4(화) 5차 10:00 ~12:00	1. 강의 명 : 비트와 녹음 2. 2. 강의 내용 : 녹음을 진행한다.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녹음한다. 3. 장소 : 세린도서관 1층 공연장 비파와 수금	강사 : 김용래 / 래퍼 진행자 : 김용진 소속 : 경주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	
10/4(화) 6차 13:00 ~15:00	1. 소모임 2 2. 내용 : 보조강사와 함께 녹음한 랩을 각자의 USB에 담는다. (총괄평가) 3. 장소 : 세린도서관 1층 공연장 비파와 수금	강사 : 김용래 / 래퍼 진행자 : 김용진 소속 : 경주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	

* 9월 6일(화) 태풍 '힌남노' 강풍 영향으로 취소

2. 진행 후

스스로 아카데미 이후 앞으로의 계획, 소감 등 전반적인 내용

-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울산작은도서관의 이야기가 담긴 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이하게 만들어진 랩이지만 저희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울산작은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들의 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협회의 행사, 강의 등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 나는 도서관 랩퍼♪ 꿈꾸는 도서관 비트로 말해 봐♪ (가사)



'동그리' 녹음현장



'랩화타' 녹음현장



'골드' 녹음현장



'메타루카' 녹음현장

♪ 1절

(동그리)

작은 도서관에 갔더니 예~!!
쌤이 반갑게 인사해 왔어?(왓쌤)
책이 좋아 놀기 좋아 배우는 게 좋아
넌 책상에만 있니 난 바닥에도 눕지

(랩화타)

앉아서 읽고, 누워서 읽고
혼자서 읽고 다~같이 읽고,
너도 오고 나도 와서 우리가 되는 곳
책도 있어 사람 있어 이야기도 있어

(골드)

오다가다 편하게 들어와 놀수있어
어딜가나내 집 앞에 가까이 있어
어떡하나 고민은 다 들어줄 수있어
누구나다함께 모여 즐거울수있어

(메타루카)

고민있어? 내가 들어줄게 이리 와!!!
머리 맞대고 함께 말해보자 와!!
동네 사랑방 우리들의 아지트
우린 책으로 소통하는 북 아티스트

(다같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
작지만 큰 도서관에~
함께 모여 읽어봐 책 책 책
함께 모여 놀아봐 짹 짹 짹

우리동네 작은 도서관에~
작지만 큰~ 도서관에~
함께 모여 읽어봐 책 책 책
함께 모여 놀아봐 짹 짹 짹

♪ 2절

(동그리)

우리 동네 도서관 내가 좋아하는 책
너는 만화책 나는 동화책 (책!!)
엄마는 미술책 아빠는 요리책
할머니 할아버지 큰 글자 책

(랩화타)

어린이와 함께하는 반딧불이 체험
어른들과 함께하는 레진공예~
주니어도 시니어도 어색하더라도
함께 모여 어울리는 작은 음악회

(골드)

보고 싶은 것은 모두 다 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네
도서관은 이런 곳 내겐 천국인 곳
자유롭게 배우고, 다같이 모이는 곳

(메타루카)

함께 모여 책을 읽는 작은도서관
함께 모여 문화를 나누는 공간
함께 모여 성장하는 작은도서관
함께 모여 소중한 모두의 공간

(다같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
작지만 큰 도서관에~
함께 모여 읽어봐 책 책 책
함께 모여 놀아봐 짹 짹 짹

우리동네 작은 도서관에~
작지만 큰~ 도서관에~
함께 모여 읽어봐 책 책 책
함께 모여 놀아봐 짹 짹 짹

3. 참여자 후기

-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대표도서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을 하지만, 작은도서관의 고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 기획하고 듣고 싶은 강의를 초청하고,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
- 동료들과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며 공부하는 날
- 함께 모여 즐기는 문화쉽타~~
- 오늘은 나도 학생 되어 재미있게 어울리고 배우는 날



4. 자체평가

잘 되었던 점

- 아무튼 랩을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총회 때도 도서관 관장님들과만 소통하는데 자신의 도서관 활동가들과 함께하여서 다른 도서관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

- 회원도서관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너무 바빠서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 녹음하고 아쉬웠던 점은 여자 목소리만 있어서 2절은 보조강사 피터 샘이나 도서관 이용자들 중 아이의 목소리도 같이 녹음했으면 듣기에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도서관 및 지역사회가 받은 영향

- 경주지부와는 지부 회의 때만 소통하였는데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하여 자주 만나서 편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울산작은도서관협회 회원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경우는 총회밖에 없었는데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협회 회원들의 도서관 활동사진을 랩에 맞추어 한 장면씩 넣어서 도서관 행사 전 기다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용인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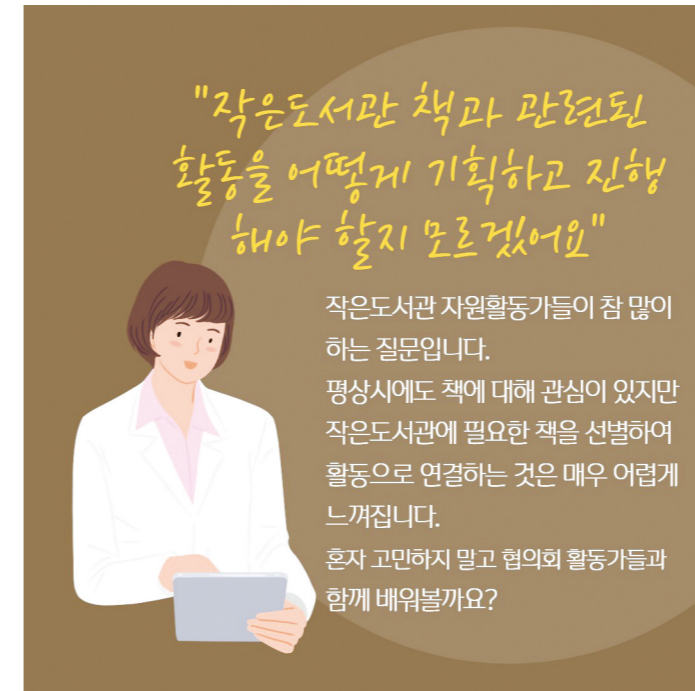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1. 소개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용도협)는 2005년 12월 마을도서관 활동을 하는 5개 작은도서관 사람들이 '용인지역 마을도서관 네트워크 모임'이란 이름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14개 작은도서관들이 함께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과 자원활동가 및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원들은 사립 작은도서관과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이며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의 협력과 상생을 중요시 하는 자발적 네트워크입니다.

용도협의 작은도서관들도 다른 작은도서관들처럼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협의회 회원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던지 가족을 챙기느라 도서관에 나오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한 장소로 판단하여 도서관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급기야 협의회 활동도 못 하겠다고 탈퇴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폐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14개 도서관 뿐이라 그 수가 매우 작습니다. 용인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140개가 넘는데 협의회 도서관이 14개니까 비율로 따져봐도 10% 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안팎으로 인정받기는 합니다.



올해 스스로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라는 사업 제목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장 힘든 역경이 코로나는 맞지만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가 자꾸 줄고,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작은도서관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작은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고 앞으로의 협의회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겪고 있었던 터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매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스스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위축된 우리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예전의 열정을 다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스스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올해의 용도협의 스스로 아카데미 활동은 자원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획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했고 무엇보다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간 회의나 총회도 줌으로 해서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닐로 방식을 선호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서 이번 교육만큼은 대면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만 하면 다소 일방적일 것 같아서 후반부에는 스스로 아카데미 컨셉트에 맞게 우리끼리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는 각자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정

1강	6/14(화) 10~12시 책나무도서관 (별당)	작은도서관의 비문학도서 - 장서영(독서코칭전문가)
2강	6/28(화) 10~12시 책나무도서관 (별당)	작가에게 듣는 문학의 세계 - 김지연(작가)
3강	7/12(화) 10~12시 책나무도서관 (별당)	북큐레이션의 개념과 이해 - 김미정(한국북큐레이터협회)
4강	8/30(화) 10~12시 자연애플도서관	작은도서관 북큐레이션 기획 - 박영주(사회적협동조합솔솔)
5강	9/13(화) 10~12시 자연애플도서관	워크숍 / 북큐레이션 주제 선정하기
6강	9/27(화) 10~12시 자연애플도서관	실습 / 북큐레이션 도서 선정 및 홍보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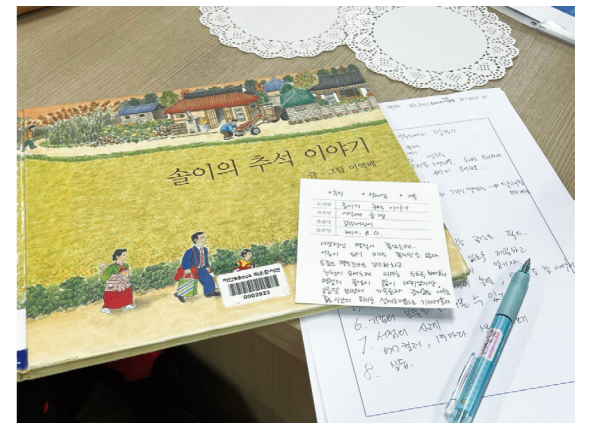
▲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일정

주제 중에서 북큐레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여서 비대면으로 교육과 활동을 진행했지만, 주로 활동에 참여하는 소수의 도서관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보다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작은도서관 활동에 활력이 생길 수 있는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북큐레이션을 진행해온 도서관들도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시작도 못해본 도서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와 실무에 도움을 줄 강사들도 섭외했습니다. 전반부 3회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책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는데 첫 출발은 비문학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최근의 출판이나 독서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북큐레이션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서전문가를 통해 도서관의 이용자,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비문학의 재미를 전해줄 수 있고 요즘 비문학의 트렌드를 알게 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책 작가를 초대해 인생을 담아낸 그림책의 과정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문학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북큐레이션의 의미와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는데 북큐레이션에 대한 교육을 처음 듣는 활동가들이 많았고 북큐레이션의 사례가 서점이나 큰 공공도서관이 많아서 따라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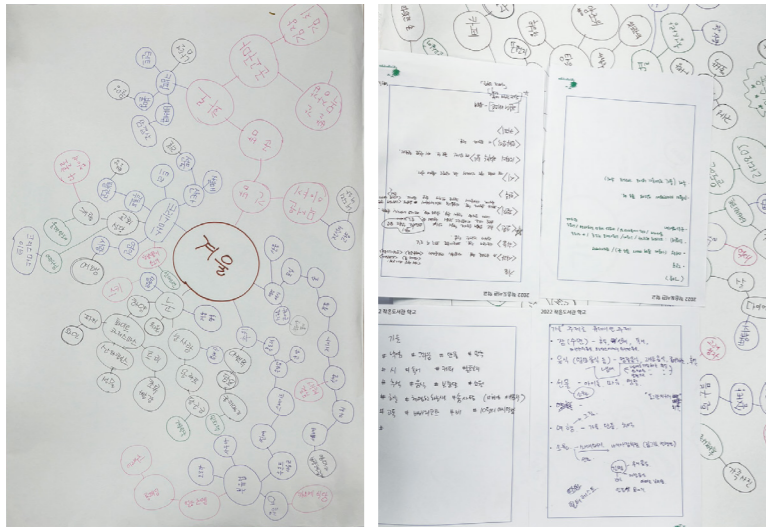
전반부 교육을 마치고 일정상 한 달 가까이 쉬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의미있는 활동으로 오랜만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 각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북큐레이션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교육한다고 책을 지급했던 것은 처음이라 매우 호응이 좋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작은도서관에 다시 모여 이전의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후반부에는 1회 교육과 2회 워크숍으로 진행했는데 1회 교육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유용할 북큐레이션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이전의 북큐레이션에 대한 교육이 큰 개념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후반부의 북큐레이션 교육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쉽게 따라하거나 조금만 응용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도 하고 스스로 해보는 과정으로 기획하여 우리끼리 북큐레이션의 대주제와 소주제를 함께 완성해보고 각자의 도서관 책으로 목록 만드는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목록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진 않았지만, 방법을 터득하고 나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개별 도서관에서 한 두 사람이 맡아서 진행하기 힘들다면 자원활동가 여럿이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북큐레이션 활동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미리캔버스를 이용해 홍보물로 만들어봤습니다. 워크숍 형태로 협의회 임원들이 리드해서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교육 때와 달리 수강생이 적었던 점입니다. 교육은 부담이 적다 느끼는데 워크숍은 부담도 있고 어려워해서 참여를 안 하니 주최하는 입장에서 많이 속상하고 아쉬웠습니다. 워크숍이란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봅니다. 초반에 관심으로 홍보가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자들이 줄어든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스스로 아카데미 덕분에 하나의 사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독서문화활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작은 친목 모임도 가지면서 협의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동감과 즐거움을 다시,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2. 진행 후

정산과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켜 보니, 가장 좋았던 점은 아직은 협의회가 무엇인가 별이고 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교육 이외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회원들을 어떻게 모이게 할까 하는 점입니다. 교육이나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주로 참여하지만 친목이나 맡아서 할 일이 생긴다면 슬쩍 빠지는 도서관 운영자들도 생깁니다. 이름은 협의회지만 결국 개별 작은도서관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자원활동가 입장에서는 각자의 도서관 운영 외에 협의회 활동이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그간 협의회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으로만 남겼었는데, 오히려 협의회 활동이 차순위, 끝순위로 여겨지는 역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 안의 도서관들은 개관일도 다르고 운영형태도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릅니다. 규모나 지원받는 운영비도 다르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협의회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협의회 임원들도 자원봉사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날 뿐입니다. 한 해의 사업은 마무리지만 이런 이유로 내년에 뭘 할지가 더 고민입니다.

앞으로 용도협이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여전히 작은도서관들의 울타리가 되고 개별 작은도서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도모하는 일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마포 작은도서관의 사례처럼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참여로 협의회가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어필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갈 길이 막막하고 작은도서관의 미래가 장밋빛은 아니라도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의지도 되고 힘도 납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또 다른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든든합니다.



3. 참여자 후기

- 알차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해준 기획력 있고 친근한 아카데미
- 같이 해야 오래 가요
-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
- 도서관 활동가들의 기획 역량강화교육으로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
- 책에 대한 작가의 기획 의도나 좋은 책을 선별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찾을 수 있었어요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교육
- 따로 또 같이, 함께라야 의미있는 교육



춘천 작은도서관 모임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1. 소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강원지부 회원 중에 춘천에서 활동하는 4개 도서관이 뭉쳤습니다. 꾸러기 어린이도서관, 꿈너머꿈도서관, 꿈마루도서관, 스무숲도서관이 대표 신청자로 신청했지만, 춘천에서 활동하는 춘천작은도서관협회 회원들이 모두 함께할만한 교육과 견학을 기획했습니다.

최근 춘천작은도서관협회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시민의제사업으로 춘천작은도서관협회 소속 6개 도서관이 [창작소 똑딱! in 도서관]¹이라는 제목으로 작은도서관 내 어린이작업장을 설치해 운영을 3개월간 진행했습니다. 또한 춘천학연구소와 연계해 [지명수배, 춘천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춘천지역 역사공간들을 탐방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2008년 춘천작은도서관협회 설립 이후 십여년간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지만, 중간중간 활동의 고비가 많았고 오랜기간 작은도서관장들이 무급자원봉사로 활동하다보니 다들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힘을 내어 사업들을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었고, 스스로 아카데미도 그러한 맥락에서 협회에 힘을 주는 사업이기를 바랐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의 애초 기획단계부터 간부교육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기간 작은도서관 활동을 했던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두고 교육을 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했던 성남의 라이브러리 티티섬 견학은 가고 싶은 이들은 많았지만, 12명 이내의 견학단

¹ 돌봄, 작은도서관이 나서다(춘천사람들 기사, 2022.01.24)

규모가 가장 적합하다는 티티섬의 이야기를 듣고 각 도서관, 기관별로 대표할 만한 분들 위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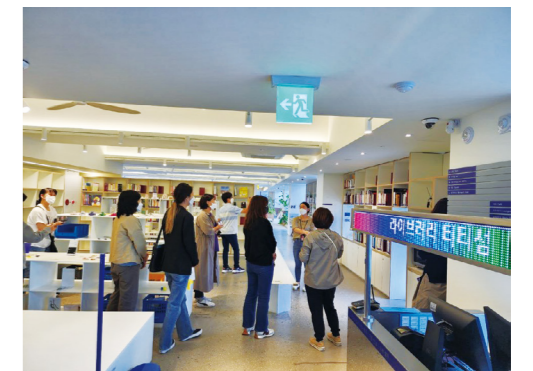
오랜 기간 춘천 작은도서관들의 교육자리가 없다보니 이렇게 함께 견학을 가는 것만으로도 나들이처럼 생각하는 운영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차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남을 방문했습니다.

① 라이브러리 티티섬

라이브러리 티티섬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춘천에서 어린이작업장을 운영했던 운영자들은 모야 작업장 부스를 먼저 살펴보고, 연령별로 청소년들의 니즈에 맞추어 구성된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기준들을 뛰어넘어 공유부엌, 목공방, 영상작업실, 다목적 댄스 공간 등 다양한 공간들과 기존 도서관서가 배치를 뛰어넘는 도서 배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4개 층에 해당하는 다양한 공간이 모두 특색있었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간 학부모들이 많아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틀을 뛰어넘는 문화기획과 공간운영을 보면서 감탄하면서도, 춘천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들은 무엇보다 공유부엌이나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공간에 흥미를 느꼈으며, 티티섬 인근이 9개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루 150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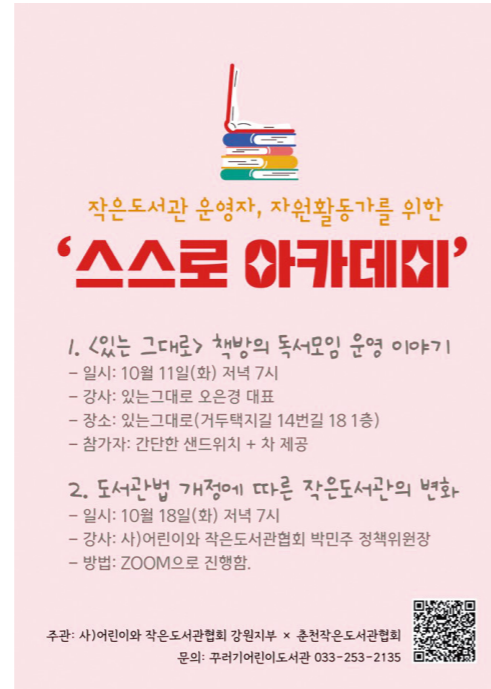
티티섬의 직원들 또한 도서관장은 청소년 기관 재직 경력자이며 나머지 직원들은 도서관 사서 자격이 있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이력을 가진 젊은 그룹들이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자유로운 팀 문화와 젊은 인력들이 있기에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티티섬 방문 후 춘천작은도서관협회 SNS에서는 며칠동안 티티섬 사진들과 후기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평가를 지역에서 진행하면서 '견학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는 분들이 많았으며 해마다 견학을 희망하는 운영자들도 있었습니다.

② 스스로 아카데미 1강 - 독서모임 운영자의 이야기

춘천의 독립책방 중에 문을 닫지 않고 오래 버티고 있는 책방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있는 그대로]라는 책방인데, 벌써 99번째 유료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가장 기본적인 독서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모임보다는 문화프로그램에 매몰되는 경향성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본을 충실할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작은도서관의 책모임은 '책' 보다는 '사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다'를 중시했는데, 이제 '독서'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세대들이 갖는 '오지랖' 본능으로 직업, 이름, 자녀유무 등을 캐기보다 닉네임으로 호명되고 OO님으로 부르면서 책을 읽었을때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온전히 잘 들어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두 자매가 운영하는 작은책방으로, 독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활동가를 위한
'스스로 아카데미'**

- 1. <있는 그대로> 책방의 독서모임 운영 이야기**
 - 일시: 10월 11일(화) 저녁 7시
 - 강사: 있는그대로 오은경 대표
 - 장소: 있는그대로(거두택지길 14번길 18 1층)
 - 참가자: 간단한 샌드위치 + 차 제공
- 2.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변화**
 - 일시: 10월 18일(화) 저녁 7시
 - 강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박민주 정책위원장
 - 방법: ZOOM으로 진행함.

주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강원지부 x 춘천작은도서관협회
문의: 푸라기어린이도서관 033-253-2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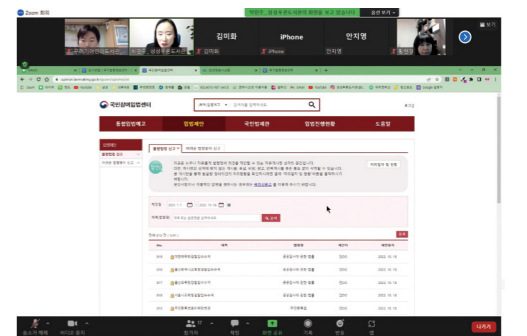


모임을 함께 했던 이들이 책방 이전부지도 알아봐주고 위로를 받는 공간으로 이 책방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엄마들이 그림책을 읽고 눈물지으며 이야기를 풀던 그 작은 도서관이 지금도 그러한지,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③ 스스로 아카데미 2강 -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작은 도서관의 변화

스스로 아카데미 교육커리는 당초 문화기획방법에 대해 듣고자 했으나, 시의적으로 운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특강으로 듣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모임과 도서관법개정 관련 강의를 기획했고, 두 번째 강의 또한 춘천작은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들이 2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1명 이상씩 강의를 들었고, 천안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관장님의 열띤 강의를 들으며 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시간 피로한 시간대였지만 zoom으로 진행하다보니 여러 도서관에서 고르게 참여해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었고, 향후 아파트 도서관 관련한 강의를 따로 기획해야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춘천의 작은도서관은 상당부분 아파트 도서관에 집중되어있고, 2강 강의때에도 5-6개의 도서관이 아파트 도서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따라 수시로 운영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택법, 도서관법에 의거해 어떤 준비와 논리를 갖고 대응해야 할지 따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보였습니다.



2. 진행 후

2023년에는 [춘천작은도서관협회 맞춤형 도서관 학교]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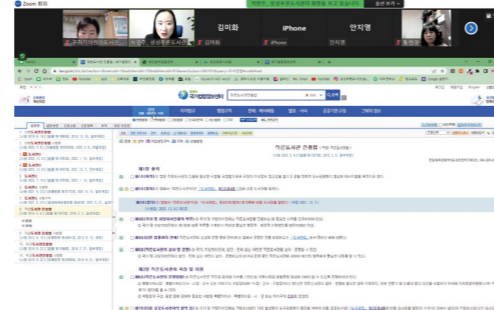
특성화도서관, 거점형 도서관, 아파트형도서관, 돌봄을 결합한 도서관등 작은도서관별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선뜻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든 구조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이 지역에서 교육 기획을 오래 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지친부분이 있어서 협회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내년에 또다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 참여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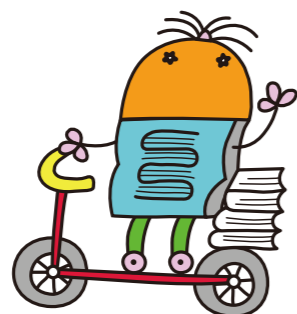
독서모임에 대한 관심도 향상

- 책 모임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시각을 알게됐음.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해보고 싶음.
- 도서관법에 대해 좀더 공부를 해야겠다.
- 티티섬 견학, 새로운 공간이라 신선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적 공간의 의미가 컸습니다.
- 평소 접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어 유익했다
- 청소년 도서관이 앞으로 티티섬 모델로 나갔으면 좋겠다. 책을 가까이 하기 힘든 세대, 책을 통해 협동작업으로 함께 배우는 공간 + 자유롭고 안락한 공간 + 개인 취향대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
- 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요. 특히 견학은 최고였어요 ^^
- 오랜만에 다른 도서관분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세 과정 모두 유익한 내용이었고 도서관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지 견학은 매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은도서관이 가진 다양성의 내면을 조금 더 가까이 공감하고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천
작은도서관
모임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뜨거운 'singers' 내가 작은도서관이다-This is me

1. 소개

현재 작은도서관 4곳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개인회원 2인으로 구성된 인천지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꿈나무도서관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37번길 29	032-471-6355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2	032-818-0645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 부평구 화랑북로 15-3 2층	-
자람도서관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645-14	032-937-2596
짙둥이어린이도서관	인천 연수구 계림로112번길 25	032-814-0377

2021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도서관을 돌아보다, 바라보다, 내다보다' 를 통해 마을과 도서관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배움을 바탕으로 개별도서관의 사례를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인천지부, 우리 스스로가 작은도서관의 역사임을 알았고, 기록을 기록하는 우리 활동가의 모습도 아카이빙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활동가들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획자이자, 실행하는 연행자였으며, 도서관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마을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창조자였으며, 마을문화를 전달하는 문화 전달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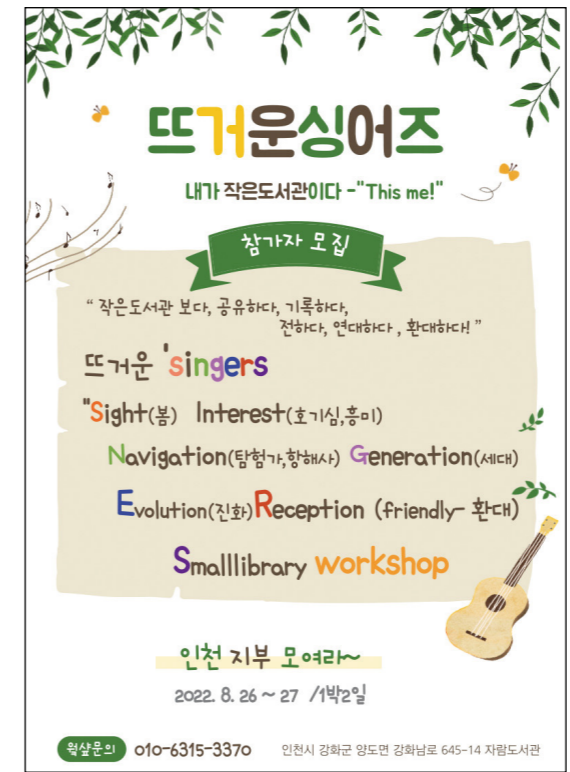
2022년 '스스로' 아카데미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써 온 우리 스스로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지부 작은도서관들 중 의미있는 활동 및 도서관을 선정!

각 도서관의 자랑하고픈 활동들과 프로그램, 마을활동들을 사례별로 모아 강의로 듣고, 실제 워크숍도 진행해 보며 직접 프로그램 기획, 발굴, 실행하는 전 과정을 각각의 살아있는 도서관 사례를 바탕으로 나누며 배움이 확장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뜨거운 'singers' - 내가 작은도서관이다- this is me

- S (sight - 봄) 작은도서관 역사와 활동을 잘 보겠습니다.
- I (interest - 호기심, 흥미로움) 호기심과 흥미로운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 N (navigation - 탐험가, 항해사) 탐험가의 눈으로 작은도서관을 잘 이끌어 온 항해사님들의 역사를 잘 담겠습니다.
- G (generation - 세대, ~대) 작은도서관 활동들을 새로운 활동가들에게 잘 잇겠습니다.
- E (evolution - 진화) 답습을 넘어 진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R (friendly Reception - 환대) 따뜻하게 서로를 환대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 S (small library workshop) 작은도서관 1박 2일 워크숍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정	시간	교육내용	누가	어디서
	16시~18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 WORKSHOP	꿈나무도서관 김광연 관장님	자람세미나실
	18시~19시	저녁식사(만찬)		만찬
8월 26일 (금)	19시~21시	책문화프로그램 -버려지는 책을 활용한 책문화프로그램 '정크아트기획 및 실제'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김선미강사님	자람세미나실
	21시~23시	마을문화창작의 중심 '도서관' -도서관을 넘어 마을축제기획	청계구리 어린이도서관 유영란 관장님	자람세미나실
	8시~9시	아침식사		자람도서관 식당
8월 27일 (토)	9시~12시	마을과 도서관 자연친화프로그램기획과 개발 자연에서 즐기는 책문화활동	자람도서관 노은진부관장님	강화나들길 가동(숲)
	12시~1시	점심식사		유진면옥
	1시~3시	마을아카이빙과 문화교육프로그램 동네꽃그림DRAWING	짙둥이도서관 이소은관장님	자람세미나실

"인천지부 스스로아카데미 함께 해요!"

2. 진행 후

교육 내용	담당도서관
1.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기획과 개발 - 그림책과 보드게임 workshop진행	〈꿈나무도서관〉 강의: 김광원 관장님 강의2: 임유진 강사님
2. 책문화 프로그램 - 버려지는 책을 활용한 책문화프로그램 '정크아트' 기획 및 실제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강의: 김선미 강사님
3. 마을문화창작의 중심 도서관 - 도서관을 넘어 마을축제기획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골목축제사례를 중심으로)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강의: 유영란 관장님
4. 마을과 도서관/ 자연친화프로그램기획과 개발 - 마을교육공동체교육프로그램개발 및 - 자연에서 즐기는 책문화활동기획	〈자람도서관〉 강의: 윤성원 자람지기님
5. 마을아카이빙과 문화교육프로그램 - 짱뚱이어린이도서관 사례발표중심 - 동네꽃그림(daily drawing)프로그램 소개 및 workshop	〈짱뚱이어린이도서관〉 강의: 이소운 관장님

작은도서관 활동을 보다 + 공유하다

인천지부의 역량있는 5개 작은도서관의 소개와 도서관별 특색사업, 마을에서 도서관의 활동등을 관장님들의 강의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느껴보았습니다.

각각의 도서관이 개발하고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놀랍게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성 등 마을에 기반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밀접하게 파악해 낸 작은도서관이었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근접성과 넓은 교회시설을 평일에는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 활용성으로 20~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꿈나무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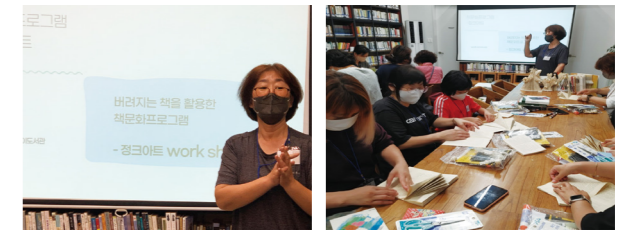
- ② 골목 상권속에 신협2층 공간을 사용하기에 지역 골목축제를 의미있게 기획하고 골목상인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 ③ 오래 된 마을에서 골목문화가 살아있고 골목마다 내 집앞을 꽃도 심고, 화분도 키우며 정성껏 가꾸는 마을문화를 잘 지켜내고 싶은 짱뚱이어린이도서관



- ④ 작은도서관의 역사책으로 다양한 책문화 프로그램과 활동,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까지 작은도서관의 활동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 ⑤ 작은 시골마을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마을사람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람도서관



작은도서관의 활동들을 이용자가 되어 즐겨보듯, 탐험가가 되어 여행하듯, 같은 운영자가 되어 살펴보듯 5개 도서관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 도서관별 실제 워크숍을 '이용자'로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마다 준비한 5개의 워크숍을 공유하

며 각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배경부터 친절한 운영방법 및 주의점도 나누고, 마을별로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까지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로서의 즐거움을 느끼다가도 매 순간 실제 우리 도서관에 어떻게 실행해 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에 역시 어쩔 수 없는 '작은도서관 사람'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기록하다 + 전하다

작은도서관 활동을 기록하는 우리 활동가의 모습과 도서관의 활동들을 아카이빙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역사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획자이자 실행하는 연행자였으며 도서관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마을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창조자, 마을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전달자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눈으로 다른 도서관의 사업을 의미있게 바라보고, 질문하며 도서관 마다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안에서 늘 머무르는 활동가들이기에 다른 도서관을 찾아가 이용자로 머무르는 참 어려웠는데, 다른 지역의 5개의 특색 있는 도서관을 도서관의 역사와 운영형태, 방법, 프로그램까지 입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연대하다 + 환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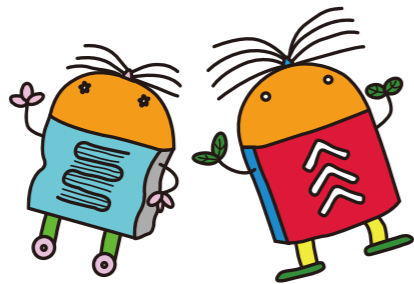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활동가로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2년을 바짝 긴장하고, 코로나에 어떻게 작은도서관은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버텨 온 지난 시간은 조금씩 대면 활동들이 스물스물 시작되는 요즘엔 오히려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숙제를 안겨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활동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대면으로 함께 만난 경험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서관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의 활동에 놀라워 하고, 감동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환대해 주는 힘이야말로 작은도서관이 가장 잘하고 자신있는 분야니까요.

3. 참여자 후기

- 우리끼리 함께 얼굴보며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 개별도서관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인천지부 작은도서관들의 활동들이 작은도서관의 역사네요.
- 도서관별 활동들이 이렇게 다양한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 도서관마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고민이 깊어지네요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주름(^;;)이 늘어 갈수록 프로그램은 풍성해지고 이용자는 행복해지네요
-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로 끝내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한 배경부터 기획, 집행,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세심하고 꼼꼼히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다른 도서관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도서관마다의 어려움과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풀어 내는 시간이었다.
- 만나니 좋~~~다.



서울 작은도서관 모임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1. 소개

(1) 서울지역모임과 걸어온 길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역모임은 22개의 도서관회원, 2개의 협의회, 그리고 3명의 개인회원이 함께 하고 있다. 서울지역모임은 2016년부터 권역지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지부장과 동, 서, 남, 북, 중앙 권역으로 나누어서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권역지기 5인이 기획하여 신청했다. 서울지역 모임은 2016년 포럼 이후 작은도서관의 책활동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 나눔과 함께 고민하는 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꽃, 인력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작은도서관 인력의 현실을 함께 나누었다. 2017년에는 <작은도서관의 꽃, 책>이라는 주제로 구매 도서 선정과 전시, 배가, 독서활동을 회원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이용자와 함께 책을 읽기 위해 작은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에는 <작은도서관과 책 2018>을 주제로 2017년 포럼 이후에 각 도서관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것들을 나누며 작은도서관에서 기획한 독서 관련 활동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자의 도서관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힘을 얻는 자리를 만들었다. 2018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그림책 깊이 읽기>를 실시하여 서울지부 회원들이 그림책을 철학, 역사, 문학, 예술과 연관해 바라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깊고 넓게 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후속 모임으로 <그림책 유랑단>을 결성하였다.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기록>을 주제로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아카이빙의 중요성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책을 제작해 ‘스스로 책한 권’을 만들어냈다. 이 결과물을 전시하는 <작은도서관 있다. 서울 2019> 전시회를 열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던 2020년에도 서울지역모임의 공부에는 멈추지 않았다. <작은도서관 비대면 시대를 살다-코로나씩씩이> 강좌를 기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비대면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에는 이제까지의 대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했다. 포럼, 스스로 아카데미 등으로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온 시간들이 있어

비대면 프로그램 기획도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다. <함께 하는 기적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시즌 1, 2를 합쳐 15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 성찰, 자아 존중감 회복,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동가들에게 나를 단단히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디딤돌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글쓰기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지와 열정은 진지하고 뜨거웠다. 글쓰기에 대한 활동가들의 열정을 확인한 후 2022년 다시 글쓰기 강좌를 기획했다. 지난해보다 자신의 내면을 한층 깊게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와 그림 강좌를 결합한 <글그림> 강좌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2) 글그림 강좌는?

(2-1) 기획의도

서울지역모임의 스스로 아카데미 <글그림 강좌>는 활동가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글쓰기 시간을 통해 활동가들 간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지역모임 소속 도서관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 업무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활동가인 나의 감정과 욕구를 들여다보고 작은도서관 활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표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 안에

수많은 이야기 거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활동가로서 살아온 개개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비슷한 시대를 관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어온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작업이 될 수도 있으리라 여겼다.

창작하는 사람의 내면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글과 그림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글이 조금 더 우회적인 표현이라면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보다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예술장르이므로 두 가지 과정을 병행한다면 활동가들이 자신을 풀어놓는 것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8주 과정을 기획했다.



글쓰기 강좌는 최창석(송송, <나를 껴안는 글쓰기> 저자, 사는재미연구소 소장)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

고, 드로잉 강좌는 김애경(미술교육자, 웃는책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선생님이 함께 이끌어주셨다.

(2-2) 모집대상과 진행방법

- 대상 - 서울지역모임 작은도서관 활동가 11명
- 방법 - 글쓰기 강좌(4회)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드로잉 강좌(4회) : 대면 강좌((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의실)
- 기간 - 9월 8일(목) - 10월 27일(목) 매주 / 8회 /각 2시간 30분
- 무엇을 - 글쓰기 강좌 : 20일 동안 매일 제시되는 주제에 따른 500자 글쓰기
드로잉 강좌 : 4주 동안 1인당 3개 이상의 작품 완성

(2-3) 상세일정과 내용

구분	일 정	주 제	구분	일 정	주 제
글 쓰 기	9/8(목)	나를 꺼안는 글쓰기란?	드 로 잉	10/6(목)	오일파스텔의 특성과 드로잉 경험하기
	9/15(목)	매일의 주제에 따른 글쓰기 (1) + 감상		10/13(목)	사진 보고 따라 그리기
	9/22(목)	매일의 주제에 따른 글쓰기 (2) + 감상		10/20(목)	자신의 작품 구상하기(1)
	9/29(목)	매일의 주제에 따른 글쓰기 (3) + 합평		10/27(목)	자신의 작품 제작하기(2)

(2-3-1) 글쓰기 강좌 : 나를 꺼안는 글쓰기

글쓰기 과정은 20일 동안 매일 글쓰기로 진행되었다. 선생님이 매일 2개의 질문을 주고 그 중 한 가지 질문을 골라 답을 쓰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다 쓰고 나면 단체 카톡방의 특제시판에 글을 올렸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매일 자신의 글을 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공감과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다.

일 정	주 제
1일	나의 빛나는 시절
2일	나를 만든 내 인생의 선택
3일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4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5일	내가 했던, 하고 있는, 하고 싶은 티끌 같은 선행/선의
6일	살아오며 만난 좋은 인연에 대해서
7일	모두가 반대하는데 나는 의지가 확고해서 밀어붙였던 경험
8일	나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내면의 힘에 대해서
9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이 될까?
10일	나는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는가?
11일	내가 믿는 것
12일	(나를 포함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13일	나에게 일어났던, 일어난 큰 변화에 대해서
14일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신체에 대해서
15일	내가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얻은 것
16일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배운 것
17일	나를 돌보는 일
18일	내 인생의 처음에 대해서
19일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
20일	나에게 묻는 '오늘 하루는 어땠어?'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나를 꺼안는 글쓰기>의 강좌는 '나를 조심스럽게 혹은 외락 꺼안는 글쓰기'다. 나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발견하고 응원하고 안아주는 글쓰기인 것이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본 강좌는 '타로 카드 속의 바보의 여행'을 따라 글을 써보는 과정을 거쳤다. 매일 글을 쓰고 매주 목요일에는 줌(ZOOM)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썼던 각자의 글 중 1편을 직접 낭독하고 선생님과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감상과 응원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과정을 4회 진행했다.

▼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팁 Tip!

하나. 함께 책을 읽으며 글을 쓸 사람을 찾는다. 적절한 계획을 세워 같이 쓰고 나눈다. 글을 쓰는 중간이나 끝에 시간을 내어 온/오프라인 낭독회를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 글쓰기가 어렵다면, 먼저 쓴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 보기만 해도 된다. 내 마음에 꼭 맞는 글쓴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다 문득 내 이야기가 떠오르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써본다.

셋. 짧아도 좋으니 마음껏 쓴다. 길고 논리적이고 완성된 글을 써보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짧은 길든,

말도 안되는 것이든 논리적이든, 완성된 글이든 미완의 글이든 쓰고 그것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2-3-2) 드로잉 강좌 : 나를 표현하는 드로잉

글쓰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단어로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그림은 나의 감정이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되어 표현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자세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스트레스 해소나 취미로 시작한다고 해도, 따로 작업실 같은 공간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스케줄'로 자리 잡아 오히려 더 피곤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종이와 캔버스, 여러 채색 도구를 일일이 구입한다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스케치와 동시에 채색을 할 수 있는 드로잉도 있다. 바로 오일파스텔 드로잉이다. 재료도 단순하다. 종이 한 장과 오일파스텔 한 세트, 그리고 손. 재료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일파스텔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작품 완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손의 감각으로 색을 과감하고 풍부하게 사용함으로써 내면의 숨겨진 예술성을 깨우는데 유용했다. 내 안에 고여 있던 나와 내 감정을 글로 표현했던 참가자들에게 오일파스텔 드로잉은 더욱 직관적인 표현의 영역으로 들어서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바깥세상은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감정 하나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무슨 색을 쓸 건지 무얼 넣고 뺄 건지 얼마나 번지게 할 건지 다 내가 정해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데에 오일파스텔 드로잉의 매력이 있었다.

일 정	주 제
1회	오일 파스텔의 특징과 함께 쓸 수 있는 재료 탐색, 사진 보고 따라 그리기
2회	책 속의 한 장면 따라 그리기, 색연필/마카와 함께 그려보기
3회	책표지를 디자인한다면?
4회	나의 작품 완성하기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을 받으면서 첫 시간부터 완성도 높은 작품을 완성해내는 참여자들이 꽤 많았다. 각각의 일상과 도서관 업무로 무언가에 오랜 시간 집중해서 하는 일이 하기 어려웠던 활동가들은 오일파스텔 드로잉을 하며 즐거워했고 새로운 재능과 기호를 발견하기도 했다.



▼ 오일파스텔 드로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는 Tip!

하나. 재료를 마구 써라.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색을 칠해보자. 과감하면 할수록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번지기, 색 섞기 등을 통해 오일파스텔이 낼 수 있는 효과를 믿고 손 가는대로 색을 칠해도 좋다.

둘. 오일파스텔을 그리기에 적당한 종이, 47색 이상의 오일파스텔을 구비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오일파스텔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일단 그려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 세밀한 부분의 묘사는 색연필이나 마카로 보완할 수 있다.



2. 문집 발간 및 출판 기념회

글그림 과정에서 쓴 글과 그린 그림들을 모아서 문집을 발간했다. 1인당 3편씩의 글과 1점의 그림을 실어 총 11명의 33편의 글이 실린 136쪽 책으로 만들어졌다. 출판기념회는 대면 모임으로 진행했다. 본인이 쓴 글을 낭송하고 글을 썼던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 보았다. 이미 한 번씩은 읽어서 또는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도 다시 낭송해서 들으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진솔한 만남의 자리이고, 위로받는 자리였고, 뜻 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만나서 글쓰기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으로 이 글쓰기 인연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3. 진행 후

서울지부 회원은 22개 도서관임에도 그 중 6개 도서관이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 글그림> 강좌에 참여했다. 더 많은 도서관들, 더 많

은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느라 고생하고 언제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도 든다. 좀더 많은 활동가와 도서관이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와 그리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적인 성장이 일어난 활동가들이 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작은도서관에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를, 그것이 작은도서관과 활동가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4. 참여자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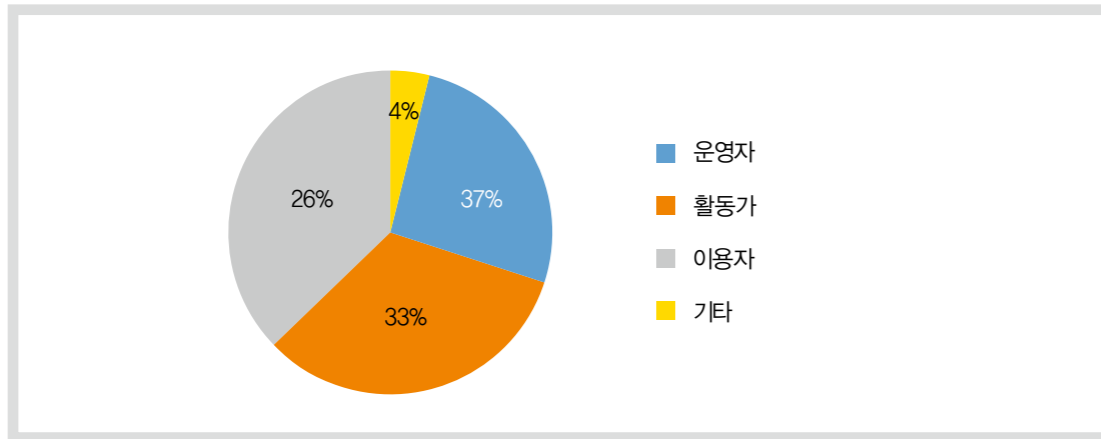
- 알알이 영근 비이삭 같은 문집입니다. 추수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 글로 꼭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달 동안 참 따스했습니다.
- 글쓰기 수업 같이해서 영광이었고 드로잉 수업도 처음 접한 거라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 내가 쓴 글에 내가 책 표지 그림을 그리다니, 행복한 경험했어요.
-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글쓰기라 더 풍성했습니다. 제 삶도 그리고 쓰겠습니다. 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록이 추억이 되게 해주어 풍성한 가을이었습니다. 추억이 손안에 담겨진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 모두가 작가이고 모두가 예술가였던 8주간의 강좌. 글쓰기와 드로잉을 통해 참여했던 선생님들 모두와 마음의 거리가 애뜻하게 가까워졌다. 선생님들 모두 사랑해요!
- 서로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기만 하려 했는데, 훗, 공감하며 글벗이 되어 버렸다.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다.
- 쑥스러운 글이지만, 글쓰기에 한발 다가간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 오랜 시간 잊고 살던 '나'를 꺼안아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혼자가 아닌 함께 꺼안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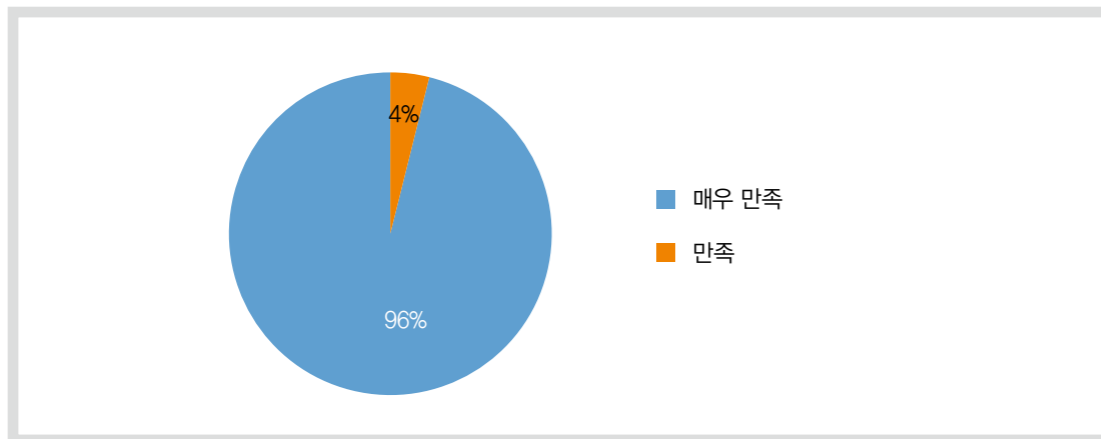
서울 작은도서관 모임



1. 각 단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2.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이 만족스러우셨나요?



3. 어떤 점이 제일 만족스러우셨나요?

- 알찬 프로그램 내용. 작은도서관들의 깊이있는 프로그램 공유
- 도서관 실무자로서 좀더 심도있게 도서를 들여다 볼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도서관 운영자들이 모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마음속에 이야기를 랩으로 쏟아내고나니, 가슴속이 시원해졌습니다.
- 티티섬이라는 다른 형태의 도서관을 직접 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접하기 쉽지 않은 아프리카 소설을 함께 읽은 것

-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것이 좋았다.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다.

4.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셨나요?

- 회원들이 너무 바빠서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
- 가을이라 일정이 겹쳐서 모임이 힘들
- 좋은 기회인데, 참석율이 생각보다는 저조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있다보니, 활동들이 겹쳐서 참석이 불가한 경우도 급히 생기더라구요.
- 아늑한 공간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를 한곳이 아닌 도서관 투어 겸 서로 왕래하며 장소를 번갈아해도 좋았을 듯 합니다.
- 기획할 때 회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감지하지 못한 점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5.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 도서관 운영자,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정보 공유도 하고 도서관 이야기로 서로에게 위안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 1박 2일로 작은도서관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보냈고 작은도서관의 힘을 느낀 시간이었다
- 수업 준비만 하다가 배움의 자리에 서 보니 생각이 또 넓어졌구요. 그리고 관계자들과 함께 배우니 서로 공감대도 돈독해졌어요.
- 책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작은도서관들이 이어져서 시너지를 만드는 장
- 나를 알아가는 과정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 기금 자료집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3년 1월 6일
글쓴이 202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자,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발행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디자인·제작 디자인센터 산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이메일 kidlib@smallib.org
홈페이지 smallib.org

※ 이 책은 코팅되지 않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글쓴이나 발행처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전재하거나 sns·매체수록 등을 금합니다.